금주의 법구-〈별역잡아함경〉
애욕보다 큰 것이 없고
분노보다 깊은 것이 없고
교만보다 높은 것이 없다.

#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8월 21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창간 23 1994~2016 제1167호 2017년 10월 10일 화요일





**〈정론직필〉 향한 23년** 1994년 10월 15일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를 사시로 창간한 현대불교신문이 23돌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현대불교신문사는 우리 사회 곳곳의 이웃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 앞장섰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끊임 없는 후원으로 2017년에는 신사옥 마련과 함께 제2의 창간을 꿈꾸게 됐습니다.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뛴 결과 팩트체크 QnA, 만다라 등 사회변화에 맞는 섹션을 운영하고 각종 기획기사로 2017년 불교언론문화상 신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영등포 쪽방촌 등 소외계층, 외국인 학생 존리 등 어려운 이웃을 돕는 등 자비실천에도 앞장섰습니다. 창간 특별 타이포그래피 '정론직필 23년'에는 각 글자마다 2017년 한해 동안 현대불교신문을 통해 가슴 따뜻한 소식, 그리고 깨어있는 식견을 전한 사부대중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앞으로도 현대불교신문은 부처님 정법에 따라 신심을 증장하는 감동있는 뉴스, 불교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기사로 찾아가겠습니다.
**- 현대불교신문사 임직원 일동 드림.**

# '불교 · 전문성' 높일 호스피스 교육 시급

## 연명의료법 시행 앞둔 불교호스피스 과제는?

**불교호스피스 수요 증가 예상**
**영적돌봄 기독교 개념 도입**
**가톨릭계 표준교육 소화**

**교육 산발, 낮은 전문성 문제**
**"일반병원서 전문가로 안봐"**
**실습 인프라 부족해 이중고**

**표준교육화 승려교육 반영**
**효과성 검증 작업 지속해야**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하 연명의료법) 전면 시행으로 호스피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작 불교계는 불교호스피스 표준교육조차 시행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단 차원 표준교육안 마련과 관련 단체들의 불교호스피스 용어 정리 등 기초작업이 시급하다.

정부는 지난 8월 2일 연명의료법 개정안 시행을 발표한데 이어 2018년 2월 요양병원의 호스피스 기관 전환 등을 골자로 한 전면시행을 예고했다. 연명의료법 시행은 임종을 앞둔 환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말기 암환자에 한해 호스피스 대상을 국한한데서 에이즈, 만성 간경화 등으로 호스피스 허용 분야를 넓혔다.

이에 따라 호스피스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10월 서울대 의대와 국립암센터가 15개 종합병원 의사 · 환자 및 일반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국민 73.3%와 의사 98.7%가 호스피스를 이용 ·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정작 호스피스 현장에서 불교 전문가는 극소수다. 호스피스에는 전문의와 복지사, 간호인력, 종교인으로 구성된 전문인력팀이 투입된다. 그중 핵심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이른바 '영적돌봄'을 행하는 종교인이다. 현재 이들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려면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60시간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표준교육(CP)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교육부장을 맡고 있는 이영실 마하보디교육원 실장은 "영적돌봄 자체가 의료차원에서 도입된 개념으로 사실상 기독교 개념이 강하다. CP과정 대부분이 가톨릭계 교육과정"이라며 "현재 협회,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등에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표준교육은 없는 상황이다. 먼저 영적돌봄 개념부터 불교사상에 근간해 정립하고 추후 공인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준교육의 미비는 산별적인 교육으로 인한 전문성 약화로 이어진다. 현장 전문가들은 일반병원에서 전문가로 선호할 수 있을 정도의 체계화된 교육이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적돌봄가 자우 스님은 "스님들이 현재 불교계 호스피스 교육을 받아도 호스피스 병원과 연결되기 어렵다"며 "종립병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일반병원으로도 진출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불교호스피스협회에 따르면 불교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스님들은 2015년 28명, 2016년 34명, 2017년 33명으로 최근 3년간 100명에 가깝게 배출됐다. 하지만 현재 일선 병원서 영적돌봄가로 활동 중인 스님들은 단 11명에 불과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병원 측에서 스님들을 전문가로 신뢰하지 않는다. 일반병원의 경우 여러 종교의 영적돌봄을 파악하고 의료진과 의학용어로 소통이 가능할 정도가 되어야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미흡하다"고 말했다.

건국대 마취의학과 교수인 임정애 불교여성개발원 생명존중본부장은 "종립병원에서 실습으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가톨릭계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한 불교계는 오히려 교육을 체계화해야 한다"며 "가정호스피스 등 새롭게 떠오르는 호스피스 분야의 경우 이런 전문성이 더욱 중요하기에 교육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범수 동국대 생사의례학과 교수는 "불교심리상담 등 이론을 반영한 불교호스피스 표준교육안을 마련하고, 종립병원, 대학을 중심으로 실습과정을 확보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 또 불교호스피스의 효과성을 안팎에 알리는 작업도 지속 진행돼야 한다"며 "종단 승려교육에 이를 반영하고, 재가자 호스피스 전문가인 '애도상담 전문가'도 양성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장 능행 스님은 "죽음을 목전에 둔 환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분노, 증오 등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를 심적으로 어루만져 주는 것이 호스피스지만 단순한 간병으로 생각한다. 협회 뿐만이 아니라 유관단체가 한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포교원 측은 "신년 병원전법단을 비롯해 불교호스피스 유관 단체들이 한 데 모여 이와 관련된 논의를 하는 연찬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는 10월 14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죽음, 청춘이 묻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호스피스 교육에 대해서 토론할 예정이다. (052)255-8530

노덕현 · 박진형 기자

#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운동 본격 돌입

## 후보 4인 전원 자격심사 통과… 선거인단 선출 마무리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 자격심사가 끝남에 따라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종훈)는 9월 25일 회의를 열고,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4인에 대한 자격심사를 실시하고 후보 전원의 자격에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각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기간 시작일인 26일부터 기자회견을 통해 종책을 홍보하고, 선거인단에 지지를 호소했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후보는 기호4번 원학 스님. 스님은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불교문화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했다. 같은 날 오후 기호1번 설정 스님은 '신심 · 원력 · 공심'을 강조하며 "새로운 한국불교, 교구서 시작된다"는 교구중심제를 다짐했다.

이어 기호3번 혜총 스님은 "종단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부대중 중심에 있겠다"면서 처음과 중간, 끝 모두 존경 받는 승단을 이룩할 것을 강조했다. 기호2번 수불 스님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1천만 불자 시대를 다시 열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수행 · 전법 중심의 대전환을 약속했다.

한편 전국 24개 교구본사는 10월 1일까지 각 교구종회를 통해 선거인단 선출을 마무리한다**(9월 28일 기준)**. 선거인명부는 10월 9일 확정되며, 선거운동은 11일까지 이어진다. 투표는 12일 오후 1시부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불교문화예술공연장서 진행된다.

〈관련특집 A7~A11〉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 "인애 · 화합 바탕, 종단 위상 높이겠다"

##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 취임 일성… 대사면 선언도

**9월 29일 법륜사서 취임법회**

한국불교 태고종 제26대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이 9월 28일 종로구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공식 취임했다.

편백운 스님의 취임일성은 명쾌했다. 화합을 토대로 내분으로 실추된 종단 위상을 다시 높이겠다는 것이었다.

편백운 스님은 "대승적 화쟁의 노력이 필요한 때다. 종단이 재도약하여 과거 영광과 명예를 되찾아야 한다. 조속한 시일 내 법란 이후 불가피 하게 종단을 떠나있거나 제약을 받는 모든 종도에게 문호를 개방해 종도 지위를 회복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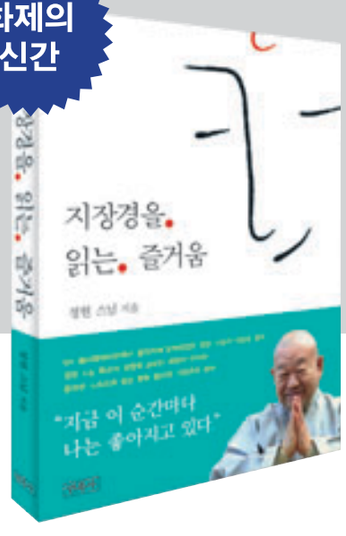
이에 맞춰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은 유시를 통해 대사면을 선언했다. 이날 취임법회는 이례적으로 전 총무원장 도산 스님의 이임식도 함께 진행됐다.

한편, 이날 편백운 스님은 선암사 소유권 분쟁 중인 조계종에 대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태고총림 선암사는 굳건히 지키겠으며 불교법란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창간 23주년 특집호 A·B 48면 발행 | 선지식에게 듣는다 현해 스님 A5 | 특집 · 佛敎 & Sports A14~17


현대불교신문 창간 23주년을 축하합니다

화제의 신간




KYOBO 교보문고 종교베스트 2위
YES24.COM 종교베스트 3위

정현 스님 지음 / 변형신국판 328쪽 / 값 16,500원

"지금 이 순간마다 나는 좋아지고 있다!"

BTN(불교텔레비전)에서 절찬리에 방영되었던 정현 스님의 지장경 강의
정현 스님 특유의 생명력 넘치는 희망의 언어로 쓴 지장경의 세계!

지장경을. 읽는. 즐거움

정해진 업도 소멸시켜 지옥을 극락으로 변화시키는 신통 묘용의 지장경!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들의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설악무산(雪嶽霧山) 큰스님 추천사

"지장보살의 대비구제 원력을 앞장서 실천하는 스님이 있다. '한국의 지장도량'으로 유명한 철원 심원사 정현 스님이다.

이 책은 정현스님 불교TV에서 강의한 거룩하고 훌륭한 설법을 엮은 것이다. 읽으면 읽을수록 입에서는 향기가 나고 귀에서는 음악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어찌 기쁜 마음으로 찬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도서출판 민족사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4 EMAIL minjoksabook@naver.com 계좌 농협 053-02-109450 윤재승(민족사)

※ 법보시는 최상의 공덕입니다. 불서의 명가 민족사 도서를 법보시 하실 분은 문의 바랍니다.